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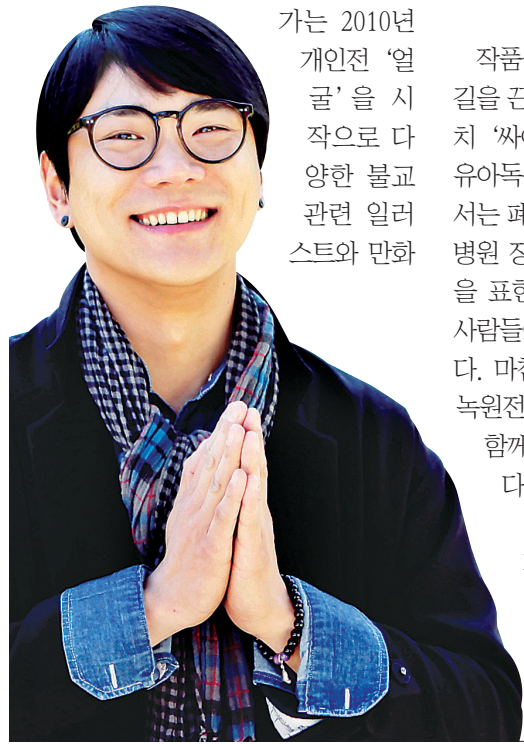
# 유럽에서 신개념 '붓다' 를 만나다

## 양경수 작가, 네덜란드서 '위대한 붓다전' 개최

현대미술작가인 양경수 씨(33, 사진)가 네덜란드에서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을 선보여 화제다.

양경수 작가는 네덜란드 국립 세계문화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2월 11일부터 8월까지 네덜란드 레이던에서,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암스테르담에서 1년간 '위대한 붓다' 전을 단독 개최한다. 여기서는 카툰으로 된 양 작가의 부처님 팔상도가 전시된다. 네덜란드 국립 세계문화박물관 초청은 한국 최초다.

단청장인 아버지와 불화가인 어머니를 둔 양경수 작가는 2010년 개인전 '얼굴'을 시작으로 다양한 불교 관련 일러스트와 만화



를 그려왔다. 대표작은 이번 전시작인 '팔상도'. 이 팔상도에는 단청과 불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채색 기법이 쓰였다.

2014년 불교박람회 '붓다아트페스티벌'에 출품해 화제가 된 이 작품은 부처님 일대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선보인다. 당시 기존 회화의 고리타분함을 벗어던지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끄는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팔상성도, 카툰으로 재해석  
화려한 색채, 현대적 감각 돋보여

작품을 뜯어보면 현대적인 해석이 눈길을 끈다. 비담강생상에서 부처님은 마치 '씨'와 같이 춤을 추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있다. 사문유관상에서는 폐지를 찢는 할머니에게서 늙음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느끼는 모습을 표현한다. 부처님이 수행한 설산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폐차장으로 묘사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전법에 나선 녹원전법상에서 부처님은 모든 대중이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DJ로 표현됐다.

양 작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일까"는 생각에서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사실 양 작가는 그 누구보



부처님을 DJ로 표현한 양경수 작가의 '녹원전법상'. 네덜란드에 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모습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다 불교전통을 오랫동안 접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개금하는 불상들 틈에 놀았으며 단청안료는 그의 색칠공부 재료였다. 중학교 때마다 아버지를 도와 불사현장에서 일을 도왔다.

"하지만 정작 산속 깊은 사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싫었죠. 부모님의 뜻대로 단청기술자가 되는 것도 거부감이 들었어요. 결국 반대에도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이에 양 작가는 2002년 추계예술대에 입학해 서양화를 공부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물든 불교의 색채는 빠지지 않았다. 군 제대 후 인테리어 일을 하던 그는 형의 사망소식에 다시 불교미술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세상과 소용

하고자 하는 젊은이의 감각과, 서양화의 기풍, 불교사상이 함께 녹아 있다.

2014년 만화로 불교를 전하는 '만만한 뉴스' 창립 멤버로도 활동한 양 작가는 그동안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환우를 위한 불교카툰 등 불교계 안팎의 활동을 이어왔다. 양 작가는 향후 해외전시 등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도 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도 구글 검색을 통해 저의 작품을 본 박물관 측에서 요청하며 이뤄졌습니다. 불교와는 동떨어져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의외로 불교를 알고,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새해에는 사경 작품보고 발원을

한국전통사경연구, 1월 7~12일 작가 9인 초대전

한국전통사경연구원(원장 김경호)은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21C 한국사경 정예작가 9인 초대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에는 강경애, 강종모, 김명림, 김영애, 박경빈, 박계준, 윤경남, 조미영, 허유지 작가가 초청돼 총 350점에 달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전국 서예공모전 중 가장 권위있는 서예문화대전서 초청작가로 활동했으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 등에 초청된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작가들이다. 조미영 작가의 경우 전통사경 기능계승자이기도 하다.



조미영 작 '오늘의 기도'

작품들은 전통사경의 권자본, 절첩본, 선장본 등 모든 양식을 총 망라했다. 병풍과 가리개, 화첩 등도 출품된다. (02)335-2186 노덕현 기자

##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3월 24일 개막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 주제로 SETEC서 개최

한국 전통과 불교문화의 현재를 엿볼 수 있는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펼쳐진다.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한국 전시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제박람회 인증을 받은 결과다.

참여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소품, 수형용품, 차·다기, 사찰음식, 옷·액세서리, 수행, 명상, 복지, NGO 출판·웹 IT 디자인, 미디어, 여행, 장례업체

등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처음 진행된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및 신상품전이 확대돼 총 3개 업체에 상급, 홍보태권이 주어진다.

특히 '조형불사' 분야가 새롭게 기획돼 전통불사와 현대적 불사 등 관련업체와 작가들이 기술을 선보인다. 또 서울국제박람회의 특별 섹션인 붓다아트 페스티벌에서는 동국불교미술인회의 불사특별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계자는 "해마다 새롭게 다양한 모습을 관람객들에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지구의 재해석

전북도립미술관 2월 14일까지 '백제의 재발견'展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현대미술로 새롭게 해석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올해 2월 14일까지 미술관 1~5전시실에서 '백제의 재발견-현대미술 리포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범석, 김윤식, 김인경, 박경식, 박방영, 박인현, 박하선, 서기문, 서운성, 윤남용, 이상조, 이성원, 이승우, 이진경, 이철규, 이철량, 이희준, 임동식, 정운학, 최재석 등 현대미술가 20명의 작가가 98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백제'를 재해석하고 그 역사성과 지역성을 새로운 가치로 드러내고자하는 시도에서 기획됐다. 이들 작가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맥락을 파악하

기 위해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부여의 부소산성지구,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등 현장답사를 다니고 역사학자의 자문을 구하는 등 꼼꼼한 작업과정을 거쳤다.

먼저 김범석 작가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느낀 감정을 형상화한 '백제의 숲 1-왕궁리'를 선보인다.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땅 밑에서 숨을 쉬는 백제 유물들을 작품 속에 담았다. 또 만경강을 따라 백제 왕궁으로 들어왔던 배들과 그 정취를 표현했다.

박인현 작가(전북대 교수)는 오방색을 활용해 계획도시였던 백제 마지막 수도 익산을 표현했다. 중앙의 황색과 함께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



박인현 작가의 '모악산이 보이는 만경평야' 오방색 중 적색으로 왕궁리 석탑을 배경으로 드넓은 익산지역 평야를 그려냈다.

색, 북쪽은 흑색 분위기로 채색했다. 중앙은 백제 무왕 왕궁터를 상징하며 동쪽은 제석사, 서쪽의 쌍릉, 남쪽 금만평야, 북쪽의 미륵사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전시전을 여는 장석원 전북도립

미술관장은 "역사와 사회를 근거로 예술을 하지만 그 결과와 예술적 가치는 다채롭고 새로우니 모처럼 깔린 백제라는 무대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 연극 '이뿔꼬', 3월 일본 진출한다

불교창작연극 '이뿔꼬'가 올해 3월 일본으로 진출한다. J&C코리아뮤지컬컴퍼니(대표 정광진)는 3월 초 일본 스님과 불자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토, 오사카, 나라, 고베 등 일본 현지에서 창작연극 '이뿔꼬'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불교극작가인 정광진 대표가 극본과 예술감독을 맡은 '이뿔꼬'는 2011년故 강태기 씨가 주인공 무명 스님 역을 맡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지난해 10월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경주, 부산, 창원 등지에서 공연이 진행됐다. 총 6000여 명이 관람하며 호평을 얻었다.

정광진 대표는 "일본에서 온 한 스님이 공연을 보고 교포 불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일본 공연을 부탁했다. 현지 사찰과 불자교인회 등과 연계해



불교창작연극 '이뿔꼬'의 한 장면.

일본 4개 지역에서 모두 4차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월 13일에는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3월 17~18일 제주도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3월 26일 김천문화회관, 3월 27일 구미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02)764-5057 노덕현 기자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JJUN Heating System Module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인증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설치장소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차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영광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안로 61(영학동)